

장애아모의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적응에 관한 연구

이삼연*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아모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과 적응 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었다. 특히 장애아모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장애아모와 장애자녀의 개인 및 환경적 특성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대처전략의 적응에의 순수한 독립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서울, 창원, 대구의 장애인복지관에 등록된 장애아동의 어머니 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대처전략과 장애아모의 적응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입증되었다.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통해 밝혀진 장애아모의 적응 예측에 기여한 대처전략은 직면전략, 책임수용전략 그리고 긍정적 재평가전략이었다. 직면과 책임수용전략은 장애아모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긍정적 재평가전략은 장애아모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들 직면, 책임수용, 긍정적 재평가전략의 적응에의 효과는 다른 예측변수의 영향력을 보수적인 방법으로 통제한 상태에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아모를 위한 사회사업개입방안이 논의되었다.

* 경남대학 사회과학부 사회복지전공 조교수

1. 서론

장애자녀의 출산이나 존재는 그 가정에 지속적인 슬픔과 부담을 안겨준다. 특히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있는 어머니는 장애자녀 치료와 양육에의 부담, 장애자녀의 증상이나 치료과정을 지켜봄으로써 겪는 고통(Powers, 1993:120), 미래에 대한 불안(Hawkins, Singer, & Nixon, 1993:318), 장애자녀로 인한 사회적 활동의 제한, 사회적 고립감(Wallander et al., 1990:818) 등으로 인해 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특히 자식을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는 한국 어머니들의 경우, 자식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고 잘못이라고 자책하며 깊은 죄책감과 좌절감에 빠져들 수 있어 그들이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자녀를 가진 모든 어머니들이 부적응 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스트레스와 적응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e.g., Kobsa, Maddi, & Kahn, 1982; Kessler, Price, & Wortman, 1985). 이것은 스트레스적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신체적 질병이나 심리·사회적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적응 간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와 적응 간의 매개 요인들의 개입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과거의 장애자녀 부모에 대한 연구가 편견이나 부적응에 초점을 두었고 스트레스를 변화시키는 요인에는 관심이 없었던 반면, 최근의 연구경향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능력에 초점을 두어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을 강조하고 있다.

부모들이 장애자녀의 출생 및 양육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문제는 가족생활 치료, 가족 체제모델, 스트레스 모델, ABCX 모델, 그리고 double ABCX 모델 등 다양한 조작적인 이론이나 모델을 통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이나 모델들은 장애자녀 부모들의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그들의 적응간의 관계성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스트레스와 대처에 대한 인지-현상학적 이론을 근거로 하여 스트레스 유발 요인, 대처자원, 대처전략과 그들의 적응간의 관계의 다변인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e.g., Frey, Greenberg, & Fewell, 1989; Miller et al., 1992; Quine, 1991). 특히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부모의 적응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계속 보고되고 있

다(e. g., Boyer, & Barakat, 1996; Krauss & Selzer, 1993; Solper et al., 1991; Sloper & Trurner, 1993; Thomson et al., 1992). 이들 연구는 장애자녀의 장애유형과 장애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사용한 척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장애아 부모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이 부모의 적응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아 부모의 대처행동에 관한 소수의 연구만 있을 뿐이며(e. g., 송영화, 1994; 정청자, 1989; 류정혁, 1990; 오세철, 1994)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는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초점을 두었을 뿐 그들이 사용하는 대처전략과 적응 간의 관계성은 밝히지 못했다.

이 연구는 장애아모의 스트레스 대처와 적응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장애아모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대처전략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장애아모와 장애자녀의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대처전략이 장애아모의 적응에 미치는 독립적이고 순수한 영향력을 밝혀내어 장애아모의 적응과 대처의 관계를 정립해 보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같은 연구는 장애아모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련된 개인 및 환경적 요인과 대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처요인의 순수한 영향력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장애아모의 적응에 작용하는 요인들의 매개적 작용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사업개입을 위한 실증적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1) 스트레스-대처에 관한 이론

과거 30여 년 동안 장애아부모의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 중 초기연구는 장애아 부모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에 관한 것임에 비해(e. g., Drotta, 1975; Gath, 1977), 최근에는 가족의 스트레스 모델을 이용한 이론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제안된 이론이나 모델을 보면, 가족생활치료(Turnbull, Summers, & Brotherson, 1986), 가족체계모델

(Olsen et al., 1979), 스트레스 모델(Crnic, Friedrich, & Greenberg, 1983), 그리고 double ABCX 모델(Lavee, McCubbin, & Patterson, 1985) 등이 있다. 이와같은 이론이나 모델들이 가족생활의 역동성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의 개념을 부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대처의 효과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미흡했다. 또한 이 모델들은 개인적 특성이나 심리사회적 환경 등과 같은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변인들간의 관계나 스트레스와 적응을 매개하는 과정을 밝히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스트레스와 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 평가와 대처의 과정적 측면을 중시하는 인지-현상학적 이론이 대두되었다. 인지 현상학적 입장은 개인이 스트레스로 지각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당면하게 되면 그것의 의미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차적 평가와 이차적 평가 두 개의 과정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았다. 일차적 평가는 환경과의 특정 만남이 자신의 안녕과 관련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지금 내가 당면한 이 상황은 어떤 것인가'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즉, 그것이 자신에게 상관이 없는 상황인지, 이롭거나 긍정적인지, 혹은 스트레스 상황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Folkman & Lazarus, 1980:220~222; Lazarus & Folkman, 1984:284~286). 따라서 일차적 평가는 그 상황의 스트레스성 여부에의 판단과정으로 개념화 될 수 있다.

이차적 평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평가하는 과정이다. 개인이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당면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일차적 평가를 하고 나면, 그 다음 과정은 의도적이든(의식적이든) 혹은 자동적이든(무의식적이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은 그 사건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지를 결정할 뿐 아니라 어떤 방법이 성공적일 것인가 혹은 그 개인이 그 방법을 적절히 잘 수행할 수 있을가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결정과정을 거친다. 이차적 평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처자원에 대한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데, 대처자원에는 신체적 자원, 환경적 자원, 물질적 자원 및 심리적 자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Folkman & Lazarus, 1980:220~222; Lazarus & Folkman, 1984:284~286). 이 대처자원들은 스트레스적 상황을 평가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개인이 이 대처자원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대처행동이 영향받는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 상황의 스트레스성

여부를 평가하는 일차적 평가와 대처자원에 대한 이차적 평가를 하게 되고, 이 평가에 의하여 다양한 대처행동을 하게 된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볼 때, 그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그가 그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2) 스트레스 중재와 대처전략

인지-현상학적 이론에서는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인지적 평가의 작용과 함께 특히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e. g., Lazarus & Folkman, 1984; Lazarus & Launier, 1978). 이 이론에 의하면 대처란 스트레스 상황에 의해 창출된 내, 외적 요구들을 처리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처전략은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활동, 행동, 사고(Lazarus & Folkman, 1984:283)로 볼 수 있다. Folkman과 Lazarus(1980)는 이러한 행동적 인지적 노력을 크게 정서중심적 대처전략과 문제중심적 대처전략으로 나누었다. 즉 개인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평가하게 되면, 대처노력을 하여 사람과 환경 그 자체를 바꾸려 하거나(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적 고통을 조정하려 함으로써(정서중심적 대처) 자신과 환경 간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려 한다고 보았다. 이 두 유형의 대처전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대처전략이 다름이 드러났다. 즉, 사람들이 긍정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거나 혹은 그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반면, 상황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인지할 경우나 혹은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취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지될 경우 사람들은 정서중심적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는 인지적 판단이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대처전략과 적응과의 관련성은 조사되지 않았다.

그 이후 인지적 평가, 대처 그리고 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더 구체적인 연구결과들이 나왔다. 첫번째 연구에서 Folkman과 그의 동료들(1986)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과 그로 인한 결과(적응)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75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그들이 일상 생활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Folkman이 Lazarus에 의해 수정된 대처전략 척도 The ways of coping checklists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초기의 2개 대처전략(정서중심적, 문제중심적 대처)을 8개의 대처전략으로 세분화한 것인데, ①

직면, ② 거리를 둠, ③ 자기통제, ④ 사회적 지지추구, ⑤ 책임수용, ⑥ 회피, ⑦ 문제해결, 그리고 ⑧ 긍정적인 재평가 등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 8가지 대처전략의 사용정도가 일차적 평가와 이차적 평가에 따라 달라짐이 밝혀졌다. 즉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심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일차적 평가), 직면 대처, 자기통제, 회피, 책임수용 대처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한편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변화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이차적 평가), 문제해결 전략이 많이 사용되었고, 상황이 더 이상 변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거리를 두는 전략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평가와 대처전략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와 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처전략은 적응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부적응의 경우, 직면, 거리를 두는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으며, 문제해결, 긍정적인 재평가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는 특정 대처전략과 적응과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두번째 연구는 인지적 평가와 대처의 육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녕과 같은 장기적 적응결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였다(Folkman et al., 1986). 연구결과 인지적 평가와 대처전략이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증명되지 못했지만, 심리적 적응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전략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면, 문제해결 전략은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직면전략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첫번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므로, 직면전략은 문제해결전략보다 다소 비적응적 대처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처전략의 효과성과 영향력은 대처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들 결과를 장애아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장애아모의 대처전략과 적응

앞에서 대처전략을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활동, 행동, 사고라고 정의하였는데 적응이란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자녀 부모가 사용하는 대처전략과 그들의 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Middlebrook

(1987)은 Folkman과 Lazarus의 8종류 대처전략척도를 가지고 발달장애아 부모 60명을 조사한 결과, 장애자녀 부모가 사용하는 대처전략과 그들의 심리적 적응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밝혀내었다. 특히 대처전략은 장애부모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결혼만족도, 스트레스 상황에의 인식, 장애자녀의 나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비해 장애자녀 부모의 적응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대처전략으로는 직면대처, 거리를 둬, 자기통제, 책임수용, 회피전략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장애아 부모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직면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거리를 두는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장애자녀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수용할수록 그리고 현 상황으로부터 도망가려는 회피전략을 자주 사용할수록 그들의 적응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loper 등(1991)은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동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Folkman과 Lazarus의 8개 대처전략을 수정하여 5개의 대처전략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했다. 이들이 사용한 대처전략은 ① 실질적 대처(*practical coping*) ② 기대적 사고(*wishful thinking*), ③ 금욕주의적 대처(*stoicism*), ④ 정서적 사회지지추구(*seeking emotional social support*), ⑤ 비관적 수용(*passive acceptance*)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자녀 부모들의 적응이 정신적 적응과 생활의 만족 두 차원에서 측정되었고,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긴장, 대처자원, 대처전략으로 보고 그들의 관계를 중다회귀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정 대처전략과 특정차원의 적응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드러났다. 장애아모의 경우, 실질적인 대처전략과 정서적 사회지지 추구 전략이 정신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기대적 사고전략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장애아모의 생활만족에서는, 실질적 대처전략과 금욕주의적 대처전략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기대적 사고와 비관적 수용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후 Sloper와 Turner(1993)는 위의 연구와 유사한 연구들을 가지고 육체적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자녀의 장애심각성, 생활사건, 부모들의 자원 그리고 대처전략의 적응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장애의 심각성, 생활사건, 사회경제적 지위, 대처전략이 장애아 부모 적응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 변수로 밝혀졌다. 대처전략과 장애아 부모의 적응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면, 정서적 사회지지 추구 전략은 어머니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대적 사고는 어머니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hompson 등(1992)은 지체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대처전략과 어머니의 적응과의 관계를 조사해보았다. Folkman과 Lazarus의 8가지 대처전략을 정서중심적 대처전략과 문제중심적 대처전략의 2개의 대처전략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책임수용, 자기통제, 회피, 거리유지 그리고 긍정적 재평가 등과 같은 정서중심의 대처전략은 장애아모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직면적 대처, 문제해결, 사회적 지지추구 등과 같은 문제중심의 대처전략은 적응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대처간 효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자녀의 장애유형과 장애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사용한 척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장애아 부모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이 부모의 적응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인지-현상학적 이론이 설명하는 대처과정과 대처전략의 장애아모의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이론에 의하면 장애아모는 장애자녀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 당면하게 될 때, 그 상황의 스트레스성 여부를 평가하는 일차적 평가와 대처자원에 대한 이차적 평가를 하고 이 평가에 의하여 다양한 대처전략으로 구성된 대처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이론에 의하면 일차적·이차적 평가가 장애아모의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고, 이 대처행동에 의하여 적응 혹은 부적응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장애아모의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대처행동, 즉 대처전략뿐이다. 이와같은 관점은 전통적으로 장애아모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장애자녀의 특성, 장애아모의 개인 및 환경적 특성을 일차적 평가와 이차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이들 요인을 독립된 단위로 다루기보다는 인지적 평가라는 총체적 개념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장애자녀의 특성이나 장애아모의 개인 및 환경적 특성이 적응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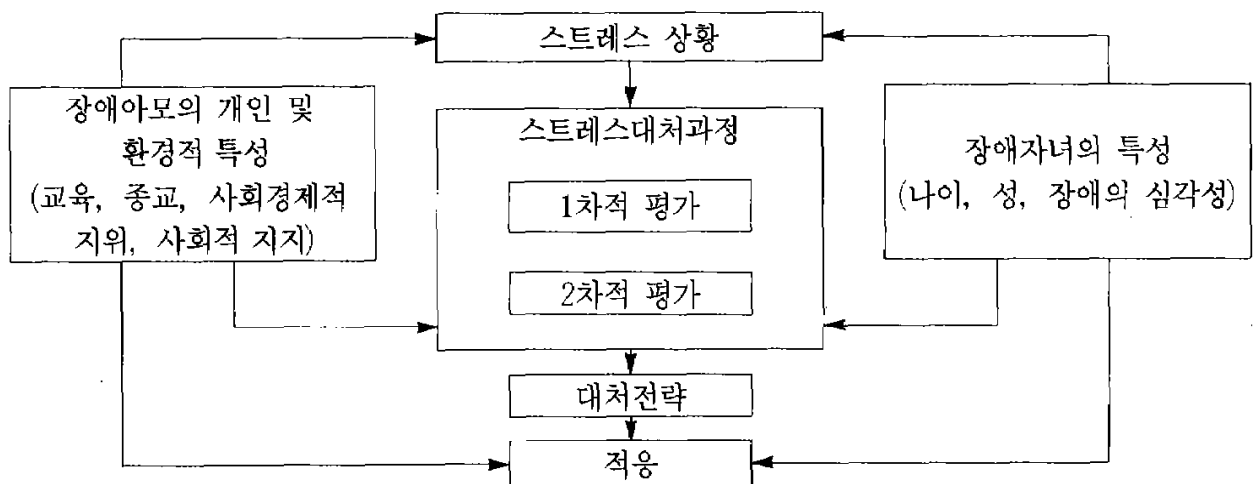
이와 같이 인지-현상학적 이론은 장애아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평가와 대처의 과정으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와같은 구조적인 측면을 간과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구조적 입장에서는 장애자녀의 특성, 장애아모의 개인 및 환경적 특성 등이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적응을 중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인지-현상학적인 입장을 따르면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 특성의 독립적 효과를 밝히기 어려우며, 구조론적 입장을 따르면 대처행동의 기능을 밝혀주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Parkes, 1986:1279).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환경적 요인들을 독립된 단위로 취급하면서, 대처전략의 적응에의 매개작용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조적 입장이나 과정적 입장, 어느 한쪽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이들을 한 모형 안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을 때 더 큰 설명력을 보일 것이다.

3. 연구모델 및 연구문제

이 연구는 장애아모의 스트레스 대처와 적응과의 관계정립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기존연구들에 의해 장애아모의 적응을 매개한다고 알려진 개인 및 환경적 특성의 영향력을 통제하면서 장애아모가 사용하는 대처전략의 순수한 독립적 영향력을 밝혀내어, 장애아모의 적응과정을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기존의 스트레스와 적응의 관계를 설명하는 두 이론적 입장—구조론적 입장과 과정론적 입장—을 통합하여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요인을 독립된 단위로 취급하면서 대처전략의 순수 독립적 효과를 밝힐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구성하였다. 이 모델은 장애아모 적응을 매개하는 요인을 장애아모의 개인 및 환경적 특성, 장애자녀의 특성, 대처전략으로 보고, 그들간의 관계를 <그림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장애아모의 개인 및 환경적 특성은 교육,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지 등을 포함하고, 장애자녀의 특성은 나이, 성, 장애의 심각성 등을 포함한다.

<그림 1> 연구 모델



위의 연구모델에 따라 이 논문에서 해답을 얻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장애아모가 사용하는 대처전략과 그들의 적응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 둘째, 장애아모의 적응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기여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인가?
- 셋째, 장애아모 적응의 예측요인으로서 대처전략이 가지는 순수한 독립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첫번째의 연구문제를 통해 장애아모가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처노력을 하는 것과 그들의 적응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처전략이 장애아모의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외, 장애아모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장애자녀의 특성, 장애아모의 개인 및 환경적 특성과 장애아모 적응과의 관계도 함께 알아볼 것이다. 두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장애아모의 적응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그들 요인 중 대처전략의 예측기여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다른 예측요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대처전략의 장애아모 적응에의 순기여도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예측요인의 분석과 대처전략의 순기여도 분석은 장애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의 적응가능성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부적응의 위험이 예상되는 어머니들을 발견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조기개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아모들을 위한 사회사업개입과정에서 그들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혹은 해가 되는 것으로 밝혀진 대처전략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이 연구는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장애아모의 선택은 서울, 대구, 창원의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취학전 장애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징

조사대상자의 특징		조사대상자 장애자녀의 특징	
연령		연령	
표준연령	34.10	표준연령	4.59
표준편차	3.28	표준편차	1.39
학력		성별	
평균교육년수	13.31	남	60(65.2%)
표준편차	1.87	녀	32(34.8%)
종교		장애종류	
기독교	24(26.1%)	정신지체	19(20.7%)
천주교	12(13%)	다운증후군	18(19.6%)
불교	23(25%)	전반적 발달장애	18(19.6%)
무교	33(35.9%)	뇌성마비	14(15.2%)
사회경제적 지위		자폐증	9(9.8%)
하류층	31(33.7%)	언어 및 행동장애	6(6.6%)
중류층	61(66.3%)	기타	8(8.6%)
상류층	0(0%)		
결혼상태		장애의 심각성	
기혼	90(97.8%)	심한 장애	27(29.3%)
이혼 및 사별	1(1.1%)	보통 장애	40(43.5%)
재혼	1(1.1%)	가벼운 장애	25(27.2%)

아동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대상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장애아모들에게 연구목적과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후 그 자리에서 혹은 집에서 작성해오도록 하였다. 총 1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자료 108부 중 성실히 응답한 92명의 사례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조사대상자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장애아모의 적응 측정을 위해 Abidin이 개발한 부모 스트레스척도의 부모편 척도 (Parent Domain Scale)를 번역 정리하여 사용하였다. Parent Domain Scale은 부모가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스트레스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이 척도는 총 54항목으로, 자녀양육에의 자신감, 자녀에 대한 애착도, 자녀양육 역할이 주는 억압감, 우울증의 정도, 배우자와의 갈등, 사회적 고립성, 건강상태 등 7개의 영역에서 적응정도를 측정한다. 이 척도의 각 문항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어머니가 취할 수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서술한 후 그 서술이 자신의 생각과 어느 정도 같은 지를 묻는다(예: 부모가 된다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일인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꼭 같다”에서 “전혀 다르다”에 이르기까지 5등급이 제시된다. 총 적응점수의 범위는 54점에서 270점 사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상황에 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척도는 미국 장애아 부모의 스트레스 적응연구 분야에서 그 타당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e.g., Greenberg, 1983; Middlebrook, 1987) 아시안 장애아모를 포함한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장애아 부모 적응연구에서도 그 타당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e.g., Hauenstein, Scarr, & Abidin, 1986; Yee, 1993).

장애아모의 대처전략 측정을 위해서는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표 2〉 측정내용

대처전략	측정내용	문항수
직면	적개심의 표현과 모험적인 행동 등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공격적 방법으로 대처하려는 노력	6
거리를 둠	자신을 스트레스 상황에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노력	6
자기통제	자신의 감정 표현과 행동을 자제하고 통제하려는 노력	7
사회적지지 추구	타인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나 정서적 지지를 얻거나 육체적 실제적 도움을 얻으려 하는 노력	6
책임수용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관해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그 상황에 대처하려는 노력	4
회피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비현실적인 소망을 가지거나 그 상황에서 도망가고 피하려는 노력	8
문제해결	스트레스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황을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의도적 노력	6
긍정적 재평가	스트레스적 상황을 정신적 성장의 기회로 해석하려는 등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노력	7

직면(*confronting*), 거리를 둠(*distancing*), 자기통제(*self-control*), 사회적 지지추구(*seeking social support*), 책임수용(*accepting responsibility*), 회피(*escape-avoidance*), 문제해결(*painful problem-solving*), 긍정적 재평가(*positive reappraisal*) 등 8가지 대처전략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50문항으로 되어있다. 각 대처전략의 측정내용은 <표 2>와 같다.

이 척도의 각 문항은 장애아모가 장애자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처행동을 서술한 후 그와 같은 대처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였는지를 묻는다(예: 나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밖으로 표출했다).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에서 “매우 자주 그렇게 하였다”에 이르기까지 4등급이 제시된다(1=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2=아주 가끔 그렇게 하였다, 3=어느 정도 그렇게 하였다, 4=매우 자주 그렇게 하였다). 각 대처전략 점수는 그 대처전략에 해당되는 문항의 총합을 그 문항수로 나눈 것이다. 예를 들어 직면이라는 전략의 사용빈도를 측정하는 6문항을 합한 점수를 6으로 나누면 직면전략 점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 대처전략점수는 1점에서 4점 사이이며, 어떤 대처전략 점수가 높다는 것은 그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총 대처점수는 8가지 대처전략점수를 총합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여러가지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의 측정을 위해서는 Power와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The Significant Others Scale(SOS)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요 사회망 구성 12명(남편, 자녀, 어머니, 아버지, 언니나 오빠, 가까운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직장상사, 전문가, 그의 도움을 주는 사람 등)으로부터 받는 정신적 육체적 위로와 도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성원 각각으로 받는 지지도는 10개의 문항(육체적 지지 5문항, 정신적 지지 5문항)을 통해 측정된다. 사회적 지지도는 각 구성원으로 받고 있는 지지도 값들의 합으로 나타나는데 최저 60점에서 최고 840점 사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친척, 친지, 이웃, 전문가 등으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척도는 .83의 test-retest 신뢰도를 나타냄으로써 믿을 만한 척도로 밝혀졌고(e.g., Power, Champion, & Aris, 1988).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안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그 신뢰도가 입증된 바 있다(e.g., Yee, 1993).

그 외 장애자녀의 나이, 성별, 장애의 심각성, 장애아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 종교의 유무 등은 설문지 질문들을 통해 측정되었다.

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 단순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단계적 중다회귀(Stepwise Multiple Regression), 위계적 중다회귀(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5. 연구결과

1) 장애아모의 대처와 적응

〈표 3〉은 장애자녀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아모들이 활용한 여덟 가지 대처전략의 평균 사용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변량분석(ANOVA) 결과, 장애아모들이 사용한 각 대처전략의 사용정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름이 밝혀졌다($F=9.18, p=.000$). 장애아모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전략은 자신을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리시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리를 두는 전략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문제해결, 직면, 긍정적 재평가, 자기통제, 책임수용, 회피, 사회적 지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아모의 총 대처점수와 적응 간의 관계를 그리고 각 대처전략과 적응 간의

〈표 3〉 장애아모의 대처전략 점수

대처전략	평균	표준편차	F	p
직면	2.58	.45	9.18	.000
거리를 둠	2.73	.43		
자기통제	2.48	.44		
사회적 지지추구	2.30	.47		
책임수용	2.47	.59		
회피	2.34	.49		
문제해결	2.72	.44		
긍정적 재평가	2.51	.57		

관계를 단순상관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았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대처점수와 적응 간에 통계학적 유의미한 관계가 입증되지 못했다. 이것은 장애아모가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려고 여러가지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과 그들의 적응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것이 의미한다. 그러나 개별 대처전략과 적응 간의 관계를 볼 때, 장애아모가 사용하는 대처전략에 따라 그들의 적응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장애아모 적응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 대처전략은 문제해결과 긍정적 재평가 전략이었고, 부정적인 관계를 가진 대처전략은 직면, 책임수용 그리고 회피전략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장애아모가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통스럽지만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려고 노력할수록 그들의 적응도가 높아지며($r=.287, p=.007$),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할수록 적응도가 높아진다는 것($r=.397, p=.001$)을 의미한다. 반면, 장애아모가 적개심의 표현과 모험적인 행동 등 공격적인 방법으로 대처할수록 그들의 적응도가 낮아지고($r=-.213, p=.048$), 자녀의 장애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처하려고 노력할수록 그들의 적응도가 낮아지며($r=-.473, p=.000$),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도망가려고 할수록 적응도가 낮아지는 것($r=-.357, p=.001$)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리를 둬, 자기통제, 그리고 사회적 지지추구 등의 대처전략과 장애아모의 적응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것은 장애아모가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신의 괴로움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표 4> 장애아모의 적응과 대처전략 간의 상관관계

대처전략	r	p
직면	-.213	.048*
거리를 둬	-.009	.937
자기통제	-.157	.151
사회적 지지추구	-.015	.890
책임수용	-.473	.000***
회피	-.357	.001***
문제해결	.287	.007**
긍정적 재평가	.397	.001***
총 대처점수	-.135	.27

* $p < .05$, ** $p < .01$, *** $p < .001$

〈표 5〉 개인 및 환경적 특성과 장애아모 적응간의 단순상관관계

변수	r	p
장애자녀 연령	-.162	.143
장애아 성별		
남아	-.135	.224
장애의 심각성		
심한 장애	-.232	.034*
가벼운 장애	.490	.000***
사회경제적 지위	-.183	.095
장애아모의 교육수준	.293	.007**
장애아모의 유종교	.319	.003**
사회적 지지	.406	.000***

* p<.05, ** p<.01, *** p<.001

고 하는 등의 거리를 두는 대처노력이 그들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음을 말한다. 또 슬픔이나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을 자제하는 등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대처노력도 그들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며, 친척이나 친지들에게 슬픔이나 괴로움을 표현하고 그들의 이해를 얻으려는 등 사회적 지지를 받으려 하는 대처노력 또한 그들의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편 대처전략 외에 장애아모의 개인 및 환경적 특성, 장애자녀의 특성 변수들과 장애아모 적응간의 상관관계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이들 변수 중 장애자녀의 성별, 장애의 심각성,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아모의 유종교는 유목변수이기 때문에 그대로는 상관관계분석이 불가능하므로 이 변수들을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장애자녀의 성별의 경우 여아를, 장애의 심각성은 보통장애를,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류계층을, 장애아모 종교의 유무는 무교를 각각 준거유목(*referenc category*)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아모의 적응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 변수는 심한 장애, 가벼운 장애, 장애아모의 교육, 장애아모의 유종교,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의 장애를 심한 정도라고 생각하는 장애아모가 보통정도라고 생각하는 장애아모에 비해 적응을 잘하며($r = -.232, p = .034$), 자녀의 장애가 가벼운 정도라고 생각하는 장애아모가 보통정도라고 생각하는 장애아모에 비해 적응을 잘함($r = .490, p = .000$)을 말한다. 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적응을 잘하고($r = .293, p = .007$), 종교를 가진 어머니가 종교를 가지지 않

은 어머니보다 적응을 더 잘하는 것($r=.319, p=.00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아 모들이 친척이나 이웃 친지 등으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그들의 적응도가 높아지는 것($r=.406, p=.000$)으로 나타났다.

2) 장애아모의 적응 예측모델

앞에서 대처전략과 그 외 변수의 장애아모 적응과의 관계를 단순상관분석을 통해 점검해 보았다. 그러나 장애아모의 적응에는 한개의 변수가 아닌 여러개의 변수들이 동시에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단순상관관계를 통해서는 장애아모의 적응을 충분히 설명하고 예측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상대적 중요성도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장애아모의 적응을 설명하고 예측가능케 하는 변수들을 알아보고 이들 예측변수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해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step-wise multiple regression*) 분석법으로 장애아모 적응 예측모델을 산출해보았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면 대처, 책임수용, 긍정적 재평가, 장애아모의 교육수준, 가벼운 장애, 사회적 지지가 장애아모의 적응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기여하는 주요 예측변수로 밝혀졌다. 이 6개의 변수들이 다 함께 57%의 장애아모 적응도 변량(*variance*)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중 가벼운 장애가 32%의 변량을 설명해 주면서 장애아모의 적응도 예측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긍정적 재평가가 10%, 책임수용, 8%, 직면 전략 3%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장애아모 교육수준 이 각각 2% 순으로 적응도 변량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지지를 많이

<표 6> 장애아모 적응 모델의 예측변수

예측변수	Beta	t	p	R ²	R ² 증가
가벼운 장애	.30	3.42	.001	.32	.32
긍정적 재평가	.31	3.80	.000	.42	.10
책임수용	-.24	-2.73	.008	.50	.08
사회적지지	.18	2.18	.032	.52	.02
장애아모 교육수준	.16	-2.06	.043	.54	.02
직면	-.16	-2.01	.048	.57	.03

주 : stepwise regression 분석과정에서 PIN은 .05, POUT은 .10으로 설정되었음

받는, 학력이 높은 장애아모가 그리고 자녀의 장애가 가볍다고 생각하고, 장애자녀로 인한 힘든 상황을 적개심의 표현이나 모험적인 행동 등의 공격적인 방법이나 혹은 그 상황을 자신의 책임으로 수용하는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정신적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장애아모가 적응을 잘함을 의미한다. 한편 단순상관관계분석에서 장애아모 적응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던 심한 장애, 장애모의 유종교, 회피전략 그리고 문제해결 전략은 다른 변수들과 함께 분석하였을 때에는 장애아모의 적응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장애아모 적응예측요인으로서의 대처전략분석

앞에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장애아모의 적응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주요 변수들의 기여도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법은 예측변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와의 단순상관관계의 크기 순서대로 모델 회귀식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즉 종속변수와 상관관계가 가장 큰 독립변수가 첫번째로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상관관계계수가 큰 독립변수가 두번째로 들어가는 방식인데, 들어가는 순서가 빠를수록 그 독립변수의 종속변수 예측에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독립변수가 언제 들어가는가에 따라 적응예측기여도가 달라지므로 때때로 기여도가 과장되어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장애아모 적응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밝혀진 긍정적 재평가, 책임수용 그리고 직면 전략의 최저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기법을 이용해, 회귀식에 다른 예측변수가 다 들어간 뒤 제일 마지막에 분석하고자 하는 대처전략을 넣어 그 대처전략의 순기여도를 분석해 보았다. <표 7, 8,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적 재평가, 책임수용, 직면전략을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도 이들 세 전략은 장애아모의 적응의 설명과 예측에 유의미한 기여를 함을 알 수 있다. 긍정적 재평가 전략의 경우, 책임수용, 가벼운 장애, 사회적 지지, 장애아모의 교육수준, 직면 전략이 들어간 뒤 마지막으로 회귀식에 들어갔을 때에도 8%의 적응도 변량을 설명해 주었다. 같은 방법으로 처리된 책임수용 전략과 직면전략도 각각 장애아모의 적응도 변량의 6%와 2%를 설명하면서 장애아모

의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7〉 장애아모 적응 예측요인으로서의 긍정적 재평가전략의 순기여도

예측변수	단계	R ²	F	R ² 증가	F 증가
책임수용 전략	1	.21	24.13***	.21	24.13***
가벼운 장애	2	.34	23.00***	.13	17.21***
사회적 지지	3	.44	22.43***	.10	14.06***
장애아모 교육수준	4	.47	18.59***	.03	4.33*
직면전략	5	.49	15.15***	.02	3.91*
긍정적 재평가전략	6	.57	17.33***	.08	15.00***

* p<.05, ** p<.01, *** p<.001

〈표 8〉 장애아모 적응예측요인으로서의 책임수용전략의 순기여도

예측변수	단계	R ²	F	R ² 증가	F 증가
가벼운 장애	1	.29	34.00***	.29	34.00***
긍정적 재평가 전략	2	.40	27.56***	.11	15.31***
사회적 지지	3	.45	22.57***	.05	8.00**
직면 전략	4	.48	19.05***	.03	5.10*
장애아모의 교육수준	5	.51	17.16***	.03	5.43*
책임수용 전략	6	.57	17.33***	.06	9.29**

* p<.05, ** p<.01, *** p<.001

〈표 9〉 장애아모 적응예측요인으로서의 직면전략의 순기여도

예측변수	단계	R ²	F	R ² 증가	F 증가
책임 수용 전략	1	.23	24.13***	.23	24.13***
긍정적 재평가 전략	2	.40	27.05***	.17	23.50***
가벼운 장애	3	.49	26.00***	.09	14.79***
사회적 지지	4	.53	22.47***	.04	6.66**
장애아모의 교육수준	5	.55	19.31***	.02	3.69
직면 전략	6	.57	17.33***	.02	3.90*

* p<.05, ** p<.01, *** p<.001

6.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아모의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그들의 적응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었다. 연구의 결과는 대처노력과 적응과의 관계성을 보여주었고, 여러가지 대처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응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먼저 대처노력과 적응 간의 단순상관관계를 보았을 때, 장애아모가 여러가지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과 장애아모의 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개별 대처전략과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장애아모가 문제해결전략과 긍정적 재평가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적응도가 높은 반면, 직면, 회피, 책임수용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적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스트레스 상황을 잘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진전시키려는 행동을 포함하는 문제해결전략과,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 하고, 그 상황을 오히려 자신의 발전과 인격수양의 계기로 만들려는 노력인 긍정적 재평가전략은 더욱 적응적인 대처전략임을 보여준다. 반면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노력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사고와 바람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회피전략과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려는 직면 대처전략 그리고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의 원인을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사고와 행동을 포함하는 책임수용 대처전략은 부적응적인 대처전략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회피전략과 문제해결전략의 영향력은 장애아모 적응과 관련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해 보았을 때 통계학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중다회귀분석결과 장애아모의 적응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기여하는 변수로서 장애아모가 인지하는 장애의 심각성, 장애아모의 교육수준, 장애아모가 받는 사회적 지지, 직면 전략, 책임수용 전략 그리고 긍정적 재평가전략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장애아모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장애자녀의 장애가 가벼운 것으로 인식할수록, 가족, 친지로부터 정서적 육체적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스트레스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할수록 적응을 잘 하는 반면,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방법으로 대처할수록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의 원인을 자기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려고 할수록 적응을 못함을 의미한다. 특히 직면, 책임수용, 긍정적 재평가전략은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도 장애아모 적응의 설명과 예측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장애아모의 적응을 돕기 위한 사회사업개입에 중요한 의미를 제시한다. 장애아모의 적응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요소 중 장애의 심각성이나 장애아모의 교육수준 등은 변화시킬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회사업개입을 통해 제거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장애아로 인한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장애아모의 적응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사회사업개입에 중요한 의미를 제시한다. 대처전략이 인식과 행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부적응적 대처전략은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아모를 위한 사회사업접근에서 대처전략의 상대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처전략에의 사정과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연구결과에 나타났듯이 어떤 대처전략은 적응에 도움을 주는 반면, 어떤 대처전략은 부적응을 초래한다면, 사회사업가는 부적응을 초래하는 대처전략을 제거하고 적응에 도움이 되는 좀더 적응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장애아모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치료접근법이 있지만, 장애아모의 부적응이 부적절한 대처행동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될 때 인지적-행동주의적 접근법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될 것이다. 이 접근법은 어떤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 상황의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개인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라고 본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잘못 평가하거나 비합리적으로 평가하면 이 비합리적인 평가는 비적응적인 행동과 태도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치료방안은 그 개인으로 하여금 비합리적이고 부적응적인 사고와 행동들을 좀더 논리적이고 적응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아모의 부적응과 관련된 대처전략은 어떤 형태로든지 부정적인 사고가 관련된다. 예를 들어 자신을 자책하고 비난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책임수용 전략과 관련된 사고는 실제로 상황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함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고통스런 상황을 적개심의 표현이나 모험적인 행동 등의 공격적 방법으로 대처하려는 직면전략도 장애아모의 객관적인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대처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스런 상황을 모두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 하고 타인에게 화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신들이 받는 죄책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일종의 방어책으로 이러한 부적응적인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현실을 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보게 될 때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전적 행동양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비합리적인 생각이 실제로 그들에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취한 것인가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없지만, 실제 이들과의 상담을 통해 그들의 사고체계를 분석해 보면 이와 비슷한 양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비논리적이고 비적응적 사고와 믿음으로 인해 부적응적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장애아모들을 위해 사회사업가가 우선 해야 할 일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적응적인 사고와 태도를 깨닫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그 다음 그들의 사고와 태도를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태도로 바꾸도록 하고, 좀더 적응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심리적 안정과 적응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류정혁. 1990. "뇌성마비 아동의 일상생활 및 사회적 지지에 따른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 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송영화. 1994. "뇌성마비아 부모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제 6 권(1). pp. 50~57.
- 오세철. 1994. "장애아 부모의 양육문제에 대한 대처자원 및 대처전략 고찰." 《지체 부자유아 교육》. 제 24 호. pp. 18~26.
- 정청자. 1989. "장애아 가정의 긴장과 적응에 관한 일 연구 : 어머니의 대처자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Boyer, B. A. & L. P. Barakat. 1996. "Mothers of Children with Leukemia : Self-reported and Observed Distress and Coping during Painful Pediatric Procedure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4(3). pp. 227~241.
- Crnic, K. A., W. N. Friedrich, & M. T. Greenberg, 1983. "Adaptation of Families with Mentally Retarded Children : A Model of Stress, Coping and Family Ecology."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88(2). pp. 125~138
- Drota, D., I. N. Baskiewits, J. Kunnrl, & M. Klaus. 1985. "The Adaptation of Parent to

- the Birth of an Infant with Congenital Malformation : A Hypothetical Model." *Pediatrics*, 56. pp. 710~717.
- Folkman, S., R. S. Lazarus, C. Dunkel-Schetter, A. DeLongis, & R. J. Gruen, 1986. "Dynamics of a Stressful Encounter :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pp. 992~1003.
- Folkman, S., R. S. Lazarus, R. J. Gruen, & A. DeLongis, 1986. "Appraisal, Coping, Health Status and Psychological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pp. 571~579.
- Folkman, S., & R. S. Lazaru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ur*, 21. pp. 219~239.
- Frey, K. S., M. T. Greenberg, & R. Fewell, 1989. "Stress and Coping among Parents of Handicapped Children : A Multidimensional Approach."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4, pp. 240~249.
- Gath, A. 1977. "The Impact of an Abnormal Child upon Par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30. pp. 405~410.
- Greenberg, D. 1983. "Support Systems and Parent Stress in Families with Trainable Mentally Retarded Children." Unpublished dissertation, Temple University.
- Hauenstein, E., S. Scarr, & R. Abidin, 1986. "Detecting Children At-Risk for Developmental Delay : Efficacy of the Parenting Stress Index in a Non-American Cultu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Virginia.
- Haukins, N. F., G. H. Singer, & C. D. Nixon. 1993. "Short-term Behavioral Counseling for Famil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Families, Disability, and Empowerment*, edited by G. H. S. Singer, & L. E. Powers, Baltimore: Paul H. Brookes Publishing.
- Kessler, R. C., R. H. Price, & C. B. Wortman, 1985. "Social Factors in Psychopathology :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6. pp. 531~572.
- Kobasa, S. C., S. R. Maddi, & S. Kahn. 1982. "Hardiness and Healthy :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pp. 168~172.
- Krauss, M. W. & M. M. Seltzer. 1993. "Coping Strategies among Older Mothers of Adults with Retardation." In *Cognitive Coping, Families, and Disability*, edited by A. P. Trunbull, D. L. Mruphy, J. M. Pattererson, & M. J. Blue-Banning. Baltimore: Paul. H. Brookes Publishing.
- Lavee, Y., H. MacCubbin, & J. M. Patterson. 1985. "The Double ABCX Model of Family Stress and Adap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pp. 811~825.

- Lazarus, R. S. & S. Folkman. 1984. "Coping and Adaptation." In *The Handbook of Behavioral Medicine*, edited by W. D. Gentry. NY: Guilford. pp. 282~325.
- Lazarus, R. S. & R. Launier. 1978. "Stress-related Transactions between Person and Environment." In *Perspectives in Interactional Psychology*, edited by L. A. Pervin & M. Lewis. NY: Plenum. pp. 237~328.
- Middlebrook, J. L. 1987. "An Investigation of Coping Strategies as Predictors of Adaptation in Families of a Handicappe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 Kent University.
- Miller, A. C., R. M. Gordon, R. J. Daniele, & L. Diller. 1992. "Stress, Appraisal, and Coping in Mothers of Disabled and Nondisabled Children." *Journal of Psychology*. 17. pp. 587~605.
- Olson, D. H., D. H. Sprenkle, & C. S. Russell. 1979. "Circumf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Family Process*. 18. pp. 3~28.
- Parkers, K. R. 1986. "Coping in Stressful Episodes: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Environmental Factors, and Situati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pp. 277~292.
- Power, L. E. 1993. "Disability and Grief: From Tragedy to Challenge." In *Families, Disability, and Empowerment*, edited by H. S. George & L. E. Powers. Baltimore: Paul H. Brooker Publishing.
- Power, M. J., L. A. Champion, & S. Aris. 1988.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of Social Support: The Significant of Others Scal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 pp. 349~358.
- Quine, L. & J. Pahl. 1991. "Stress and Coping in Mothers Caring for a Child with Severe Learning Difficulties: A Test of Lazarus' Transaction Model of Coping."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 pp. 57~70.
- Sloper, P., C. Knussen, S. Truner, & C. Cunningham. 1991. "Factors related to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Life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Down's Syndrom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2. pp. 655~676.
- Sloper, P. & Turner. 1993. "Risk and Resistance Factors in the Adaptation of Parents of Children with Severe Physical Disabilit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4. pp. 167~188.
- Thompson, R. J., J. L. Zeman, D. Fanurik, & M. Sirtkin-Roses. 1992. "The Role of Parent Stress and Coping and Family Functioning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to Duchenne Muscular Dystroph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8. pp. 11~19.

- Turnbull, A. P., J. A. Summers, & M. J. Brotherson. 1986. "Family Life Cycle." In *Families of Handicapped Persons: Research, Programs and Policy Issues*. edited by J. J. Gallagher & P. M. Vietze. Baltimore: Paul H. Brodus Publishing.
- Wallander, J. L., L. C. Pitt, C. A. Mellins. 1990. "Child Functional Independence and Maternal Psychosocial Stress and Risk Factors Threatening Adaptation in Mothers of Physically or Sensorially Handicapp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6). pp. 818~824.
- Yee, S. Y. 1993. "Cultural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Adaptation of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h. D. diss. Florida State University.

A Study of Coping Strategies and Adaptation of Mothers of Handicapped Children

Yee, Sam-Yean

(Kyungnam Univ. Social Welfare)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 relationship between coping strategies and adaptation in mothers of handicapped children. The second purpose was to assess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coping strategies to maternal adaptation, controlling other variables that previously have been found to be important in determining maternal adaptation. Finally, the unique effect of coping strategies as predictors of maternal adaptation was examined. The subjects consisted of 92 mothers of handicapped children. They were asked to complete several self-report measures that were used to assess the variables of interest.

The results indicated that coping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maternal adaptation. Specifically, the use of confrontive coping, accepting responsibility, and escape-avoidance coping strategy were related to poorer maternal adaptation. On the other hand, painful problem solving and positive reappraisal strategy were related to better maternal adaptation. The step-wise regression results further indicated that coping strategies were significantly predict maternal adaptation. Specifically confrontive coping, accepting responsibility, and positive reappraisal coping strategy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prediction of maternal adaptation compared to the other variables. Finally, the confrontive coping, accepting responsibility, positive reappraisal strategies turned out to contribute substantially to maternal adaptation even after several other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controlled in conservative way.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or social work interventions was discussed.